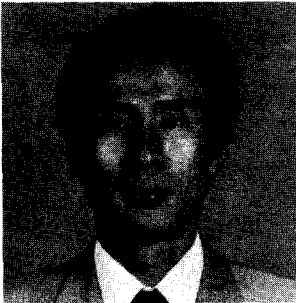


1989년의 經濟展望



曹 琮 和

(産業研究院·經濟學博士)

89년의 우리經濟는 안팎으로 수 많은 도전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국제수지 흑자지속에 따른 통상마찰과 원화절상, 주요 수출시장인 선진국경제의 둔화, 노사분규와 고율의 임금상승지속, 금리자유화 실시 이후 금리변동의 불확실성 등을 포함하는 여러가지 여건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88년말 이후 우리경제의 움직임은 보면 수출과 생산이 크게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남으로써 지난 3년간 누려온 호황이 이제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경기침체국면을 맞는 것이 아닌가하고 우려하는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1. 최근의 經濟動向

88년중 12.1%의 높은 성장율을 달성하여當初의 기대를 훨씬 뛰어 넘는 호조를 보였던 우리경제는 88년말 이후 뚜렷한 둔화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수출증가율이 88년 11월의 전년동월비 29.1%에서 12월에는 22.9%로 둔화되었다가 89년 1월 10.9%, 2월 5.4%로 더욱 낮아졌다. 수출의 선행지표인 신용장내도액은 1월중 전년동월비 7.9% 증가한 이후 2월에는 2.1% 감소함으로써 향후 수출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산업생산의 증가율도 88년 10월 15.4%→11월 10.2%→12월 7.2%로 둔화추세에 있다.

생산둔화에 따라 제조업 가동율도 부진하여 88년 12월중 가동율은 78.5%에 머물렀는데 이는 노사분규가 극심했던 88년 2/4분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89년 경제를 보는 시각을 정립하는데 앞서 우선 필요한 것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내외의 여건이 향후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를 전망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目 次

1. 최근의 經濟動向
2. 내외 여건변화
 - (1) 대외 여건
 - (2) 대내 여건
3. 1989년의 경제 전망

표 1.

주요경제지표의 최근동향

	1986	1987	1988	1989	
				1 월	2 월
실질 GNP 성장률(%)	12.3	12.0	12.1		
산업생산증가율 (%)	20.6	18.2	13.8		
제조업가동율 (%)	79.4	82.2	80.4		
수출 (백만달러)	34,715 (27.7)	47,281 (36.1)	60,696 (28.4)	4,391 (10.9)	4,343 (5.4)
수입 (백만달러)	31,584 (12.5)	41,020 (29.8)	51,811 (20.8)	4,386 (18.9)	4,238 (17.0)
무역수지(통관기준, 백만달러)	3,131	6,261	8,885	5	105

2. 내외여건변화

(1) 대외여건

● 선진국 경기의 둔화

먼저 88년중 예상밖의 경기호조를 나타낸 선진국경제는 89년에는 그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87년 10월 세계적인 주가대폭락과 뒤이어 국제금융불안의 조짐이 나타나자 대부분의 경제예측 기관들과 전문가들은 88년의 세계경제를 매우 비관적으로 보았었다.

즉 주가폭락에 따른 자산손실은 직접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소비, 투자 등 내수를 위축시키고 성장을 둔화시킬 뿐만 아니라 무역위축을 통하여 2차적인 부정적 파급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88년중 세계경제, 특히 선진국경제는 위와 같은 예상을 깨고 호조의 성장세를 나타내어 실질성장률이 87년의 3.2%보다 훨씬 높은 3.9%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일본과 서독의 내수확대, 미국의 수출증대로 압축되는 선진국간 정책협조의 효과가 88년중 크게 나타난 데다 87년 이래 88년초까지 진행된 금융완화정책의 효과로 미국, 일본 등의 기업설비투자가 크게

신장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89년의 선진국경제는 88년에 비해 상당히 둔화될 것이라는 것이 산업연구원 등 주요예측기관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인 미국경제(총수출의 약 40%)의 성장률이 88년의 3.8%에서 89년에는 2.4%로 떨어지는 것을 위시해서, 일본이 5.5%에서 4.1%로, 서독은 3.0%에서 2.1%로 하락하는 성장둔화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진국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함께 교역량의 증가율도 낮아질 것으로 보여 내년도 우리의 수출경기에 적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88년중 선진국경제의 호황에 따라 8.0%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는 선진국의 교역증가율(수입물량기준)은 89년에는 5.0%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개발도상국의 교역증가율도 88년의 8.0%에서 89년에는 7.0%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表-2 참조).

무역환경면에서 보아도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지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88년 8월에 입법 발효된 미국의 「종합무역법」은 무역뿐 아니라 금융, 환율 및 지적소유권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범위에 걸쳐 자국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표. 2

89년 世界經濟展望(KIET)

單位: %

		世界	先進國	美國	日本	西獨	프랑스	英國	開途國
經濟成長率 ¹⁾	1987	3.1	3.2	3.4	4.2	1.7	2.2	3.7	2.5
	1988	3.6	3.9	3.8	5.5	3.0	2.7	3.5	2.4
	1989	2.7	2.7	2.4	4.1	2.1	2.3	2.5	2.8
失業率	1987	—	8.1	6.2	2.9	8.9	10.8	10.6	—
	1988	—	7.8	5.5	2.6	8.7	10.4	8.6	—
	1989	—	7.8	5.7	2.6	8.4	10.8	8.2	—
消費者物價上昇率	1987	—	3.0	3.7	0.1	0.3	3.3	4.1	—
	1988	—	3.5	4.0	0.6	1.2	2.6	4.6	—
	1989	—	3.8	4.5	1.3	1.3	2.7	5.0	—
貿易伸張率 ²⁾	1987	5.8	6.9	2.6	9.3	5.4	7.0	7.4	4.4
	1988	7.6	8.0	4.0	15.0	5.0	6.5	11.0	8.0
	1989	5.3	5.0	3.0	9.0	4.0	4.2	6.5	7.0

註: 1) 美國, 日本, 西獨은 實質GNP, 나머지는 實質GDP成長率

2) 輸入物量基準

資料: 산업연구원, 1989년 세계경제전망, 1988.12

있어서 미국의 통상압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 완만한 약세보일 달러화

한편 지난 3년여 동안 급격한 변동을 보였던 주요통화간 환율은 89년에는 그 변동폭이 축소되어 상당히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달러화는 지난 85년 이래의 약세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88년 2/4분기부터 11월 대통령 선거전까지 달러화가치는 미국의 무역적자 감소 추세와 금리상승 등에 영향받아 그동안의 약세를 깨고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달러화의 엔에 대한 환율은 한때 136엔까지 치솟아

표. 3

換率¹⁾, 金利¹⁾ 및 油價¹⁾ 展望(KIET)

單位: 연율, %, 달러당 각통화, 달러/배럴

	1987	1988	1989				
			I	II	III	IV	
日本 엔 貨	122.0	120.0	118.5	117.5	117.0	115.0	115.0
西獨 마르크 貨	1.582	1.680	1.675	1.670	1.670	1.650	1.650
美國 프라임레이트	8.20	9.40	10.50	10.75	10.50	10.25	10.50
유로 달러金利	7.10	7.80	8.80	9.00	8.80	8.80	8.80
OPEC 平均油價	17.2	13.7					13.5

註: 1) 換率은 期末基準, 金利·油價는 期間平均 基準임.

2) 3개월물 기준임.

資料: (표-2)와 동일

87년 말에 비해 10%이상 상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0월이후 다시 하락하고 있는 달러화 환율은 89년말에는 115엔 내외를 기록하는 완만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表-3 참조), 이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87년의 1,700억 달러에 비해서는 줄고 있다고 하지만 88년과 89년에도 1300억~1400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고, 미국의 물가상승율이 일본이나 서독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미국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열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저유가 계속되는 국제석유시장

지난 85년말 이후 급속한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는 국제원유가는 89년에도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85년중 배럴당 26.5 달러에 달했던 OPEC 평균유가는 88년에는 13.7 달러(연평균 기준)로 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OPEC이 지난 11월에 있었던 정기총회에서 회원국의 하루 생산 쿼터를 1,850만 배럴, 공시가를 배럴당 18달러를 합의함에 따라 국제원유가는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 추세는 89년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국제석유시장의 구조적인 공급과잉상태를 감안할 때 이 같은 유가상승세가 그리 오래가지는 못하고 다시 하락세로 반전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9년중 OPEC 평균유가는 88년과 거의 비슷한 배럴당 13.5 달러(연평균 기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2) 대내여건

89년의 우리경제는 안으로도 수많은 도전을 받을 것이다. 우선 87년부터 본격화된 원화의 절상과 임금의 빠른 상승이 금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더하여 88년말부터 실시된 금리자유화도 우리경제의 새로운 불확실성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정치·사회적인 전환기를 겪음에 따라 표출되는 각종의 기대욕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변화도 심상치 않다. 특히 노사간의 갈등은 임금인상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기본패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가지 국내여건 가운데 다음의 두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 금리자유화와 금리의 변동

89년중 우리경제의 내부에 발생할 전혀 새로운 여건변화는 88년 12월 5일부터 실시되는 금리자유화와 그에 따른 금리의 변동이다. 금리자유화의 기본취지는 그동안 금리를 묶어두고 정부의 간섭에 의해 배분하여 왔던 금융자원(자금)을 이제부터는 시장메카니즘을 작동하여 금리라는 금융시장의 가격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즉 과거 경제의 규모와 구조가 비교적 작고 단순했을 때는 정부가 경제의 어떤 부문(산업)으로 금융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비교적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경제규모가 100조원(1987년 GNP 기준)에 달하는 대규모로 발전하였고 산업구조도 매우 복잡해졌기 때문에 정부의 판단과 통제에만 의존하는 금융자원의 배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금리자유화는 지금까지 인위적인 자금의 할당(Credit Rationing)에 익숙해진 금융시장의 관행을 변모시킬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도 폭넓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유화이후의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변화할 것인가는 직접적으로 기업의 금융비용과 투자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동안 업계가 금리자유화 논의에 대해 달갑잖은 반응을 보여온 것도 만성적인 자금부족상태에 있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실정에 비추어 금리가 자유화되면 상당폭의 금리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리자유화로 금리가 수직상승할 것으로 보는 것은 다소 지나친 우려가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첫째 과거 우리경제가 만성적인 자금의 초과수요를 겪었던 것은 국제수지의 적자

가 지속됨에 따라 투자가 저축을 초과하였기 때문인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 연간 경상수지흑자가 14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국제수지의 기조전환이 정착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축이 오히려 투자를 상회하고 있다.

둘째 금리자유화에 따라 기업의 행동양식이 변화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동안 금융시장이 자금부족 상태에 있었던 것은 시장금리와 공금리의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은행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기업에게는 큰 혜택으로 생각하고 은행돈이라면 무조건 빌려놓고 보자는 식으로 행동해왔기 때문인데, 금리가 자유화되면 그렇지 못하다는 인식을 하게되고 행동양식도 변모할 것이다. 또 기업들은 시장의 금리동향 및 예상되는 금리변동과 계획한 투자사업의 수익성을 비교하여 투자사업의 추진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며 직접금융시장의 이용도도 높아질 것이다.

세째, 금리자유화가 되더라도 지급준비율정책, 재할인정책, 공개시장조작 등 통화정책의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한 전통적인 금리조절기능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금리의 급격한 변동을 막아줄 것이다.

그러나 금리자유화는 그것이 내포한 경제운용상의 기본원칙이나 철학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도 경제의 구석구석에 미칠 파급영향을 고려할 때, 시행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몇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금리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통화량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데 따르는 문제점을 직시해야 된다고 본다. 가령 금리가 상승할 때 통화당국이 통화량을 풀어서 금리상승을 억제한다고 하자. 통화량의 증가는 경제이론이나 여러가지 실증적 분석에 밝혀져 있듯이 기대인플레이율(expected rate of Inflation)의 상승을 가져오고 이는 다시 명목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통화량 증가→기대인플레이율 상승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인플레이의 가속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잦은 통화량의 조정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서 경제주체들의 투자와 소비의 결정에 어려움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금리가 자유화되고 통화규제방식이 간접규제방식으로 바뀐다 해도 통화량증가율의 목표치 설정과 그에 바탕을 둔 통화량 조정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예컨데 $x\% \sim y\%$ 와 같은 통화량 증가율의 범위(band)를 설정하여 발표하고 그 범위를 준수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금리자유화에 따라 금리가 소폭이라도 올라간다면 그렇지 않아도 국내외금리차와 환율변동때문에 유입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핫머니」가 늘어나서 통화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 투기성 자금을 여하히 관리하느냐 하는 것도 정책적인 과제중의 하나이다.

세째, 금리자유화에 따라 금융시장의 시장기능이 제고되면 자금배분의 효율성(efficiency)은 제고되는 한편으로 형평(equity)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중소기업이나 농어촌개발 및 서민주택자금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리자유화가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그 동안의 타율경영으로 부터 벗어나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신용 및 서비스 제고 등을 내걸고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체질개선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 계속될 원화의 환율변동

원화의 환율은 지난 3년여 동안의 절상추세를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진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원화의 대 달러환율은 87년중 8.7%, 88년중

15.8% 절상된데 이어 89년에도 3월 8일 현재 1.7%(672.8원)에 달하는 빠른 절상속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88년 이후 원화의 환율변동속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87년까지는 원화가 달러화에 대한 절상에도 불구하고 엔화나 마르크화에 대해서는 절하 추세를 보였던 데 비해 88년 이후에는 거의 모든 통화들에 대해 일제히 절상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즉 87년중 원화는 달러화에 대해서는 8.7% 절상되었으나 엔화에 대해 16.6%, 마르크화에 대해서는 11.4%씩 각각 절하되었다. 그러나 1988년에는 달러화에 대해 15.8% 절상된데 더하여 엔화 및 마르크화에 대하여 각각 19.2%, 30.7%씩 절상되었고 이 추세는 89년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표-4 참조). 이처럼 원화가 거의 모든 주요통화에 대하여 동반 절상됨에 따라 실효환율 역시 급속히 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5대 교역국과의 교역량을 가중치로 한 원화의 실효환율은 88년초 이래 15%이상 절상되었다.

이와같은 원화의 평가절상에 따라 수출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더욱 시급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정부로서는 향후 환율운동에 있어 환율변동의 폭과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원화환율의 움직임을 예측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환율 결정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체적인 대응노력을

원활하게 해 주는데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예상된 환율조정에 대해서는 기업이 시간을 두고 구조조정을 해 나갈 수 있지만 예상하지 못했을 경우는 조정이 힘겹고 파급영향도 클 것이기 때문이다. 또 기왕에 상당폭의 평가절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미국의 압력에 끌려다니는 인상을 주기 보다는 가급적이면 국내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능동적으로 환율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는 것이 환율조정에 따르는 경제적·비경제적 마찰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기업으로서도 환율변동의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화절상에 따라 불가피하게 전개될 조정작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요망된다. 특히 환율변동을 정확히 예측하여 구조조정에 대비함과 아울러 생산성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기업체질 강화, 업종전환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은 통화강세시기의 우리기업들이 풀어야 할 필수적인 과제라고 하겠다.

3. 1989년의 경제전망

우리경제를 둘러싸고 일어날 이상의 내외여건을 종합해 볼 때 1989년의 우리경제는 각종 양적 및 질적 환경변화를 겪으면서 숨가쁜 조정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선진국경제가 위축되고 원화의 급속한 절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경제의 성장원동력인 수출이 과연 지금까지와 같은 호조세를 계속할 것인지와 각종 경제적·비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활동은 활발할 것인지 등은 1989년도 경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원화절상과 수출

87년 36.2%, 88년 28.4%로 높은 증가세를 보여 온 수출은 그 증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 요인을 들면 우선, 88년 들어 급속히 진행되어 온 원화절상의 파급효과가 점차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88년중의 수출이 급격한 원화절상과

표. 4 원화환율의 추이

	86년말	87년말	88년말	89년3월8일
₩/S	861.4	792.3 (8.7)	684.1 (15.8)	672.8 (1.7)
₩/¥	5.4142	6.4943 (-16.6)	5.4485 (19.2)	5.2277 (4.2)
₩/DM	443.84	500.98 (-11.4)	383.21 (30.7)	363.19 (5.5)

註: ()안은 전년말비 절상(+) 절하(-)율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호조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살핀 바와같이 87년까지는 원화가 달러화에 대해서는 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나 마르크화 및 대만·원화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절하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파급효과가 88년에 까지 미쳐서 우리의 수출기업들이 수출가격의 인상 등을 통하여 수출금액의 둔화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88년초 부터는 원화가 달러화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고 다른 주요통화에 대해서도 일제히 절상됨으로써 실효환율이 절상되고 있기 때문에 (表-4 참조) 경쟁력의 약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88년중 호조를 보인 선진국의 경기가 89년에는 위축될 것이라는 점도 수출증가세 둔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수입은 환율변동과 경기호조에 따른 수입 수요의 증대, 각종 흑자관리대책에 힘입어 꾸준히 증대, 88년의 518억 달러(26.1% 증가), 89년에는 632억 달러(22.0% 증가)에 이를 전망이다. 앞으로 국제수지의 흑자규모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하여 통상마찰을 완화하고 통화관리를 원활히 하는 한편, 소비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산품에 대한 제반 수입장벽을 허물어 나가는 한편 원화절상에 따른 원화표시 수입가격의 하락 유도, 수입절차의 간소화 등의 조치가 요망된다 하겠다.

● 호조보일 설비투자

88년 1/4분기~3/4분기중 11.0% 증가에 그쳐 86년과 87년의 15.4%와 13.6%에 크게 못미친 고정자본형성이 각종 경제적·비경제적 불확실성, 금리자유화의 실시 등에 영향받아 둔화추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88년의 설비투자둔화는 상반기에 있었던 노사분규에 따른 국산자본재의 일시적인 공급 차질에 영향받은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기업가

들을 대상으로한 경기실태조사 결과로 보아 최근 기업들은 앞으로의 경기가 당분간은 호조를 계속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공산권을 비롯한 신규시장에 대한 기대감 및 임금상승에 따른 자동화투자의욕 등에 힘입어 순조로운 설비투자 증대가 예상된다. 국내기계수주나 건축허가면적 등 투자지표의 최근동향은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다만 금리자유화의 실시에 뒤이어 금리수준이 어느정도 변동할 것인지는 앞으로의 투자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 내수비중 높아질 1989년 경제

한편 일반적으로 경기변동의 과정에서 가장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소비지출은 지난 3년간의 호경기, 높은 임금상승 등을 바탕으로 견실한 성장세(8% 내외)를 지속할 전망이다. 따라서 1989년의 경제는 수출둔화, 투자·소비 호조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성장의 내용면에서 해외부문의 비중이 낮아지고 내수쪽의 비중이 높아질 것임을 시사해준다.

우리경제의 실질GNP성장율은 1988년에 12.1%에 달하여 86~87년의 호황에 버금가는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1989년에는 수출을 중심으로 다소 둔화되어 8~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3년동안 기록한 년평균 12%의 초고속성장에는 다소 못미치는 것이지만 81~87년간의 연평균성장율 7.2%를 상회하는 안정적인 성장세로 볼 수 있겠다.

다만 문제시되는 것은 연간 경상수지 흑자폭이 1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통화관리의 어려움과 그 동안의 호경기에 기인한 총수요압력 및 임금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의 지속으로 88년중 7.2% 상승한 소비자물가 상승율은 1989년에도 6%대의 상승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당분간 거시경제정책운용의 최우선과제는 안정기조를 되찾는 것이라 하겠다.